

것이 '문학동네' 측의 설명이었다.

40주년을 맞는 문학과지성사가 발표한 '5세대 편집동인' 6명은 모두 30대로 구성됐고, 문화평론가와 서평가, 영상커뮤니케이션 전공자가 포함됐다.

뒤이어 민음사에서 발행하는 40년 역사의 문예지 '세계의 문학'이 2015년 겨울호를 끝으로 발간 중단을 선언하면서 문학계를 놀라게 했다. '세계의 문학'은 두꺼운 문예지를 과감히 버리고, 이를 대체할 다른 형태의 종이 잡지나 웹진 등을 고민하고 있다. 민음사가 공언한 방향은 "독자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다.

독자 지향 문예지의 출현은 문학을 좋아하는 이들이 그저 재미있는 문학, 공감 가는 글을 보고픈 갈증에서 나왔다. 기존 문예지가 자사 문예지를 통해 등단한 작가 위주로 글을 싣고 비평하면서 정작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담지 못하는 데 대한 답답함을 대변했다.

## ■ 한국문학 '가뭄'... '헬조선' 다룬 작품 화제

한국문학은 이렇다 할 히트작 없이 부진을 이어갔다. 교보문고가 집계한 2015년 베스트셀러 목록 20위권 안에 한국 시집이나 소설은 단 한 권도 없었다.

"한국 소설에 '이야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가운데 기자 출신 신인 작가 장강명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장씨는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에 걸쳐 수림문학상, 한겨레문학상, 문학동네작가상, 제주4·3평화문학상 등 대형 문학상을 휩쓸며 존재를 알렸다. 그가 2015년 펴낸 장편 '한국이 싫어서',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땃글부대' 등은 한국사회 부조리와 돌파구 없는 20대의 무력감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구병모의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 백가흠의 '사십사', 조해진의 '여름을 지나가다' 등이 20~40대 한국 남녀의 고민을 날것 그대로 펼쳐보였다.

중견 작가인 박범신은 '당신'에서 치매 부부를, 황석영은 '해질 무렵'에서 지난 세대의 업보를 대신 짚어준 젊은 세대에 대한 연민을 그리며 시대의 고민에 동참했다. 4월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작가 15명이 참여한 소설집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가 나왔다.

'헬조선'이라 불릴 만큼 답답한 한국 사회에 관한 염증은 동시에서도 나타났다. 5월 출간된 이순영(10) 양의 시집 '솔로 강아지' 수록작 '학원가기 싫은 날'에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 이렇게 // 엄마를 씹어 먹어" 등의 격한 표현이 담긴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시적 표현은 엄연히 시인의 자유라는 의견과, 윤리를 해치는 '잔혹 동시'라는 의견이 온라인에서 분분하게 오갔다. 결국 출판사는 책을 모두 회수하고 다시 편집해 출간했다.

## ■ 하퍼 리 55년 만에 신작...노벨문학상은 기자 출신 작가에게

전 세계에 4천만 부가 팔린 '앵무새 죽이기'(1960)의 작가 하퍼 리(89)가 55년 만에 후속 내용을 담은 '파수꾼'을 내놨다. '앵무새 죽이기'의 주인공 스카웃은 '파수꾼'에서 20대가 됐다.

책 내용은 7월 14일 전 세계에 동시 출간되기 전까지는 각국의 번역가 1명과 편집자 1명씩만 알고 있을 정도로 극비에 부쳐졌다.

'앵무새 죽이기'에서 흑인 청년을 변호한 인물로 그려진 애티커스 핀치가 '파수꾼'에서는 인종 차별주의자로 묘사돼 논란이 됐지만, 발간 첫 주에 북미에서만 100만 부가 팔리면서 하퍼 리의 영향력을 재확인했다.

노벨문학상의 영예는 벨라루스의 기자 출신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에게 돌아갔다. 여러 신문사와 잡지 기자로 일한 알렉시예비치는 그 경력을 바탕으로 2차 세계대전,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 극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목소리 소설'을 썼다.

사실상 전통적 문학보다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작품을 쓴 알렉시예비치는 스웨덴 한림원에서 "저널리즘의 형식을 초월해 새로운 문학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작품은 오늘날 문학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 미술

### ■ 개요

2015년은 어떤 해보다도 미술계에 큰일이 많았다.

한국 미술계를 대표했던 천경자 화백이 별세했고, '세계 미술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에서 임흥순 작가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은사자상을 받았다.

국립으로는 국내 유일할 현대미술관은 46년 만에 외국인을 관장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미술품 경매 낙찰총액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 ■ 천경자 화백 별세

'꽃과 여인의 화가' 천경자 화백이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화백의 딸이 8월 유골함을 들고 서울시립미술관을 방문했다는 소식은 10월 22일 알려졌다. 사망설이 수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천 화백의 별세 소식이 확인되자 미술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 10월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천경자 화백 추도식에서 한 추모객이 헌화를 하고 있다.

천경자 파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내 미술계 최대 위작 시비로 꼽혔던 1991년 '미인도' 논란이 재점화됐다.

유족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미인도에 대해 "본인이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했다"며 위작임을 다시 주장했고, 1999년 이 작품을 위조했다고 진술한 고서화 전문 위조범을 수사한 전직 검사가 공개 강연에서 "위조된 게 맞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논란에 불을 댕겼다.

1924년생인 천경자 화백은 여인의 한(恨)과 환상, 꿈과 고독을 화려한 원색으로 그려내 1960~80년대의 국내 화단에서 여류화가로는 보기 드물게 자신의 화풍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를 받았다.

그는 1998년 작품 93점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하고 뉴욕으로 떠났다.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후 거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맨해튼에 있는 딸의 간호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인의 안타까운 별세 소식은 또 있었다. 영원한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1932~2006)의 부인 구보타 시게코(久保田成子) 여사가 7월 미국 뉴욕의 한 병원에서 78세로 별세했다. 시게코 여사는 자신도 전위적 예술운동인 '플럭서스' 활동 멤버이자 비디오 아티스트로, 백남준에게는 부인이면서 예술적 동반자의 삶을 살았다.

## ■ 임흥순, 베니스 비엔날레서 은사자상

공연, 영화 등 다른 분야에 비해 향유 층이 얇다고 인식돼온 미술계에 5월 해외에서 '파격' 수상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인 패거리가 전해졌다. 1895년 시작된, 세계 최고(最古)의 현대미술 축제인 베니스 비엔날레 제56회 미술전에서 임흥순(46) 작가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은사자상을 받았다.

국가관이 아닌 본 전시에 초청받은 국내 작가로서는 최초 수상이었다. 은사자상이 35세 이하 젊은 작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번이 파격으로 회자됐다. 한국관이 창설 20주년을 맞은 해여서 의미가 더욱 컸다.

수상작은 아시아 여성의 노동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작품이었다. 한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촬영한 95분 분량의 '위로공단'에 대해 심사위원단은 "아시아 여성들의 노동 조건과 관계된 불안정성의 본질을 섬세하게 살핀 영상 작품"이라고 평했다.

작가는 "40년 넘게 봉제공장의 '시다'(보조) 생활을 해 오신 어머니, 백화점 의류 매장과 냉동식품 매장에서 일한 여동생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고 말했다.

## ■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외국인 임명

1년 넘게 공석이던 국립현대미술관장이 12월 2일 임명됐다. 2014년 10월 당시 관장이 '학예연구사 부당 채용 파문'으로 직위 해제된 이후 재공모 절차까지 거쳐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49) 전 바르셀로나현대미술관장이 뽑혔다.

1969년 국립현대미술관이 개관한 이래 외국인 관장은 처음이며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기관의 수장으로 외국인이 선정된 것도 최초였다.



▲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신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12월 1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계의 상징적 기관으로, 국내 유일한 '국립' 현대미술관이다. 이러다보니 이 자리에 대한 관심은 공모가 진행되는 내내 계속됐다. 상반기 진행된 공모에 이어 하반기에는 재공모가 이뤄졌다.

재공모 심사 결과 외국인 후보의 신원이 밝혀지자 관장이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하는 논란이 미술계에서 제기됐고 일각에선 신임 관장의 전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 성명을 내기도 했다.

## ■ 양대 경매사에 주목…단색화도 눈길

서울옥션이 10월에 연 제16회 홍콩경매에서 김환기의 1971년 작인 전면 점화 '19-VII-71 #209'(253×202cm)는 3천100만 홍콩달러, 한화 약 47억2천100만원에 낙찰됐다. 2007년 5월 서울옥션 국내 경매에서 45억2천만원에 낙찰된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를 제치고 국내 작가 미술품 중 경매 최고가를 기록했다.

12월 16일에는 한국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이며 보물 제1210호로 지정된 '청량산괘불탱'(靑凉山掛佛幀)이 35억2천만원에 낙찰돼 고미술품 최고가 기록을 다시 썼다.

서울옥션 경매에서 40억~150억원에 출품된 청량산괘불탱은 추정가에는 못 미쳤지만 기존 고미술품 최고가를 넘어선 가격에 낙찰됐다. 이전 최고가 고미술품은 2012년 K옥션 경매에서 34억원에 낙찰된 보물 제585호 '퇴우이선생진적첩'이었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와 미술경제 전문 월간 '아트프라이스'에 따르면 국내 9개 경매사의 미술품 경매를 집계한 결과 총 92건의 경매에서 출품작 1만7천587점 중 1만2천347점(70.2%)이 낙찰됐으며, 전체 낙찰총액은 전년 970억원에 비해 94%가량 늘어난 1천880억원으로 나타났다.

경매사별 낙찰총액은 서울옥션 1천7억 원, K옥션 677억 원, 아이옥션 40억 원, 에이옥션 32억 원, 마이아트옥션 22억 원 등의 순이었다.

양대 메이저인 서울옥션과 K옥션의 비중은 지난해 각각 47%, 32.7%에서 2015년에는 57%, 36%로 커졌다. 미술시가 감정협회와 아트프라이스는 2개 주요 경매사 비중이 전체의 93%를 차지해 "주류를 형성하는 현대미술 시장은 양대 경매사의 일방적인 각축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작가별 낙찰총액으로는 2015년에도 김환기가 1위였지만 금액 면에선 전년 약 100억원에서 24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음으로 정상화(157억원), 이우환(117억원), 박서보(110억원) 등의 순이었다. 30위에 들어간 작가 중 김환기와 단색화가인 정상화·이우환·박서보 등의 낙찰총액을 더하면 59%의 비중을 차지했다.

## 음악

### 대중가요

#### ■ 개요

2015년 가요계는 신구 세대 가수가 컴백하며 어느 해보다 풍성한 한해였다. 세월호 참사로 앨범과 공연 일정이 취소되며 침체했던 지난해에 비해 활기를 되찾았다.

이문세를 필두로 박진영, 이승환, 이승철, 임창정, 신승훈 등 1980~9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대거 새 앨범으로 돌아와 '중견'의 저력을 보여줬다. 새해 벽두부터 MBC TV '무한도전'의 영향으로 1990년대 가수들이 재조명됐으며, 하반기 M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열풍으로 1980년대 음악이 음원차트에 진입해 시대를 넘나들며 복고 바람이 두드러졌다.

음원과 음반 판매량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보여준 가수들도 있었다. 빅뱅은 6장의 싱글을 잇달아 내며 음원차트 정상을 장악해 '음원 킹', 엑소는 정규 2집으로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하며 1집에 이어 더블 밀리언셀러를 기록해 '음반 킹'의 면모를 과시했다.

장르적으로는 힙합의 강세가 계속됐다. 엠넷 '쇼미더머니'와 '언프리티 랩스타' 등의 힙합 프로그램이 사랑받았고 지코, 산이 등 래퍼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음원 사재기' 논란이 3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들며 어두운 이면을 드러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이 13년 만에 사죄하며 한국행을 호소했다가 비난받은 반면, 동방신기와 JYJ·슈퍼주니어 등 2세대 아이돌 스타들은 대거 입대했다.

#### ■ 신구 세대 조화…선배들 활약 속 빅뱅은 '음원'·엑소는 '앨범' 강자

2015년 음원차트는 대표급 아이돌 가수들의 활약과 레전드급 선배 가수들의 컴백으로 정상 다툼이 치열했다.

빅뱅은 5~8월 싱글 6장 잇달아 내 음원차트 정상을 올라 여름 시장을 장악하며 '음원 킹'의 면모를 입증했다. '루저'(Loser)와 '베베'(Bae Bae), '뱅뱅뱅', '이프 유'(IF YOU), '맨정신' 등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아이튠즈 차트와 중국 차트에서도 반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음원 쏘개기' 전략은 음악 시장이 CD에서 음원으로, 음원 시장 역시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소비 주기가 짧아지는 현상이 가속화된 흐름에서 효과를 봤다.

엑소는 2013년 정규 1집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데 이어 정규 2집으로 다시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하며 막강한 팬덤을 자랑했다. 2집 '엑소더스'(EXODUS)가 75만3천860장, 2집 리패키지 앨범 '러브 미 라이트'(LOVE ME RIGHT)가 37만1천160장이 팔려 총 112만5천20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정규앨범 모두를 밀리언셀러로 만드는 저력을 보여줬다.



▲ 12월 30일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5 KBS 가요대축제'에서 그룹 엑소(EXO)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8인조로 재편한 소녀시대, 4인조로 재편해 3년 만에 밴드로 돌아온 원더걸스, '여름 강자' 씨스타, 상승세를 탄 AOA 등 걸 그룹들도 6~8월 대거 컴백해 흐름을 형성했다. 그중 씨스타는 '여름 강자'란 수식어답게 차트 1위를 석권했고, 원더걸스는 3년 만에 컴백·멤버 재편·밴드 변신 등으로 화제성이란 측면에서 성공했다.

과거에 멈춰 있지 않겠다는 1980~90년대 선배 가수들도 어느 때보다 좋은 성적을 냈다.

이문세는 13년 만에 낸 15집 신곡 '봄바람'으로 음원차트 1위에 올랐고, 박진영도 '어머님이 누구니'로 차트 정상을 경험했다. 임창정은 '또다시 사랑'으로 1위를 수성하며 3개월간 '롱런'했다.

신구 세대의 허리급 가수인 싸이도 3년 5개월 만의 정규 앨범인 7집을 내고 더블 타이틀곡 '나팔바치'와 '대디'로 국내 차트를 '울킴'했다. 또 '대디'가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인 '핫 100'에 97위로 진입해 싸이는 '강남스타일'과 '젠틀맨', '행오버'에 이어 아시아 가수 최초로 4곡 연속 빌보드 메인차트에 오르는 월드스타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 ■ 방송 타고 8090 복고 열풍·계속된 힙합 강세

방송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복고 바람도 강하게 불었다.

2015년 초 '무한도전'의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에서 S.E.S, 지누션, 터보 등 1990년대 가수들의 노래가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차트에 재진입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급기야 이들 가수의 합동 공연이 열렸고, 당시 가수들의 컴백으로 이어졌다.

지누션은 4월 11년 만의 신곡 '한 번 더 말해줘'를 선보였고, 터보도 12월 김종국, 김경남, 마이키 등 역대 멤버가 뭉쳐 3인조로 새 앨범 '어게인'(Again)을 발표하며 15년 만에 컴백했다.